

한국야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70년대 야구 대중화의 배경을 중심으로

김은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사회학 전공
esew@hanmail.net

- I. 머리말
 - II. 1970년대 야구의 성장
 - III. 스포츠 수요층의 확대
 - IV.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 진흥정책
 - V. 지역주의
 - VI.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722).

I. 머리말

한국에서 야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의 매개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의 유니폼을 즐겨 입거나, 야구를 즐기지 않는 이들도 ‘인생은 9회 말부터’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같은 야구 격언을 인용해 삶을 묘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야구가 가지는 정치적, 문화적 위상과 의미를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 야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야구다. 프로야구는 국내 프로스포츠 입장객의 60%, 입장수입의 78%, 중계권수입의 81%, 라이선스 포함 머천다이징 시장의 68%를 차지한다.¹ 또한 연간 800만 명이상이 직접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것 외에도 1년에 730경기 이상 이루어지는 중계방송은 TV와 모바일을 통해 연간 4억 5천만 명, 하루 평균 289만 명이 시청하는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²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야구사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한국야구의 역사와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야구 창설을 기획하고 주도한 전두환 정권의 역할을 주목해왔다. 한국 프로야구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광주항쟁 이후 흥흥한 민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서 출범’했다는 분석³이나, 국가의 호출을 통해 생산된 통제수단이었다는 설명⁴이 그 예다.

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8 스포츠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9), 89-90쪽, 296-300쪽.

2 KBO보도자료, 2013년 2월 26일.

3 안민석,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사태와 한국 프로스포츠의 구조」, 『황해문화』 30호 (2001), 360쪽.

4 김명권,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제7권 2호

프로야구 창설 과정을 전두환 정권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1981년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안된 구기종목의 프로화 계획이 11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3개월 만에 6개 구단의 창단이 완료되고, 다시 그 한 달 뒤 개막전을 치렀을 만큼 빨랐던 진행은 다각적인 사업성 검토와 협의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과 협조요청을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모면하고 정치적 비판 여론을 무마해야 했던 정치적 필요가 있었음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야구의 발전을 전두환 정권의 역할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에서 프로야구 창설 시도들이 있을 만큼 야구가 폭넓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었으며, 충분한 선수와 자본의 공급도 가능했기 때문이다.⁵ 또한 프로야구가 전두환 정권 퇴진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했다는 사실 역시 정권의 영향력이 부차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야구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창설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넘어 그것을 요구했고 또 가능하게 했던 배경을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야구의 급격한 성장에 주목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야구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인식 하에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프로야구가 창설된 1980년대에 비해 1970년대의 한국야구에 주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 중 1970년대 고교야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이종성(2017)이 있으며, 전용배·김애랑(2011)은 한일 야구

(2012), 180쪽.

5 김은식,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한국학』 제42권 2호 (2019), 497-502쪽.

문화를 비교하며 1970년대 고교야구 붐의 배경을 분석한 바 있다.

전용배·김애랑은 식민지기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명문고등학교들이 야구부를 운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야구에 엘리트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며, 명문교에 재학하며 야구를 접한 뒤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파워엘리트들에 의해 고교야구의 인기와 파워가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⁶ 그리고 이종성은 고교야구대회를 주최한 유력한 주요 신문사들이 대회 때마다 자기 매체를 통해 경기상황과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점과 야구부를 보유한 각 명문학교 동문들의 경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⁷ 고교야구대회 주최를 주도했던 주요 신문사 간부들이 대부분 야구선수 경험이 있거나 야구부를 보유한 명문학교 출신들이었다는 점에서 두 연구의 분석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소한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야구는 명문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향유되고 보급되는 상류스포츠였으며, 그 배경은 식민지기 일본인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중등학교들에서 주로 야구부가 운영되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런 분석은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하던 야구가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는 종목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야구가 급격히 성장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주요 명문학교들이 야구부를 운영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고교야구대회를 주최한 것은 해방 직후부터 계속된 일이었지만 야구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은

6 전용배·김애랑, 「한일야구의 사회문화적 함의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제34권 (2011), 313쪽.

7 이종성, 「1970년대 고교야구의 전국화와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2권 3호(2017), 62쪽.

1970년대부터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고교야구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성장은 곧 대학야구와 실업야구로 번졌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프로야구 창설을 지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정도로 성숙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목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언론 보도들을 분석했다. 특히 학생야구와 성인야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관중 규모, 스카웃 관련 이슈들을 탐색하고 한국 사회에서 야구의 위상이 어떤 계기들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확인했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그리고 각종 대회 기록 등을 분석해 야구선수와 팀, 대회와 경기 수의 변화와 전개양상을 파악했다.

셋째, 해당 시기에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로서 직접 활동한 다양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된 자료들의 공백과 한계를 보완했다.

II. 1970년대 야구의 성장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스포츠였지만 1960년대까지는 대중적인 관심을 얻지 못했다. 유학을 경험했거나 야구부를 운영하는 명문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계층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구는 축구와 달리 경기 양상이 직관적이지 않으며 규칙이 복잡하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장비들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한 규격의 전용경기장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일정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교적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한다. 한국에서는 상당기간동안 이런 까다로운 야구의 특징들이 대중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그것을 넘어설 계기들이 마련되지 못했다. 사회지도층에 널리 포진한 명문학교 출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대회가 치러지긴 했지만 야구가 한국에서 좀처럼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한 이유였다.

1949년 서울운동장의 유료입장객 328,391명 중 야구가 73,62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⁸ 하지만 그 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야구경기가 86경기였던 반면 축구는 36경기, 농구는 17경기에 불과해 야구의 경기당 평균관중 수 856명은 축구(1,698명), 농구(1,107명)는 물론이고 육상(1,686명)과 자전거(1,051명)에도 못 미쳤다. 야구는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긴 했지만 가장 많은 관중을 모으는 종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야구의 위상은 성인 선수들의 처우와도 직결되었다. 70년대까지 실업야구 선수들의 계약금은 농구와 배구의 여자 선수들에 비해 낮았다. 예컨대 1963년 연말의 한 보도는 가장 치열한 스카우트 경쟁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여자농구로서 계약금이 평균 50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여자배구라고 전했다.⁹ 또한 1967년의 기사는 ‘여자농구와 배구 같은 인기종목의 경우 1백만 원대의 현찰을 싸들고도 신랄한 싸움 끝에 이겨야 마음에 드는 선수를 겨우 모셔올 수 있다.’¹⁰고 썼다. 반면 야구의 경우 극소수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받는 계약금도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그들을 제외하면 따로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¹¹ 야구가 최고의 인기종목으로 떠오른 1980년에 연세대를 졸업한 최동원이 실업팀 롯데에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을 때 ‘야구선수가 가장

8 《동아일보》, 1950년 2월 13일자.

9 《동아일보》, 1963년 12월 6일자.

10 《경향신문》, 1967년 11월 29일자.

11 박영길 인터뷰, 2011년 9월 13일.

값싸게 팔리던 전례를 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¹² 언론지면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지 못했다. 1966-1967년 신문 체육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각 종목에 할애된 기사의 양은 농구, 축구, 야구 순이었다.¹³

하지만 1970년대부터 한국야구는 팽창했고, 진원지는 고교야구였다. 우선 팀과 경기 수가 급증했다.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 20개 안팎으로 유지되던 고교야구팀 수는 1960년대 말부터 급증해 1975년에는 55개 팀이 야구협회에 등록했다.¹⁴ 그리고 팀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도 늘어 1960년대 중반의 600명 선에서 1978년 1,179명까지 늘어났다.¹⁵ 팀과 선수 모두 10여년 만에 배로 불어난 셈이었다.

야구팀과 선수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회와 경기의 급격한 증가였다. 《중앙일보》가 1967년에 세 번째 전국대회인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를 창설했고, 1971년에는 한국일보가 네 번째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를 창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봉황대기 대회는 지역예선 없이 모든 학교가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경기와 관중 증가에 기여했다. 서울운동장에서 8강전이나 16강전부터 치르는 다른 대회들은 도별로 예선을 통과한 1, 2개 팀만이 출전할 수 있었지만 봉황대기 1회 대회에는 야구팀을 보유한 전국 37개교가 모두 참가했고 그 중 5개교(전남고, 광주고, 대전고, 경기상고, 철도고)는 창단 이후 첫 전국대회 본선을 경험했다. 그 대회는 모두 36경기를 치렀는데, 8강전이나 16강전부터 서울야구장에서 치르던 다른 대회들에 비해 2-5배나 많은 경기 수였다. 그런 변화는 더 많은 학교들이 야구부 창설을 고려하게 했다. 이미 강력한 전력을 갖춘 명문팀이 각 도별로

12 《동아일보》, 1980년 12월 1일자.

13 이경자, 「신문체육기사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9권(1974), 124쪽.

14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사』(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1999), 815쪽.

15 대한체육회, 『체육연감』(대한체육회, 1979), 150쪽.

한두 개씩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회 수가 늘고 최소한 한 번은 본선무대 진출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이변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관중증가폭은 더욱 컸다. 서울에서 치러지는 4대 전국대회체제(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봉황기)가 완성된 1971년에 30만 명 선이던 서울야구장 고교야구 총관중은 4년 뒤인 1975년에는 667,8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979년에는 1,126,372명으로 다시 배로 늘었다. 총 관중 증가가 경기 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 이상이었다는 점은 각 대회 관중집계로도 확인된다. 1964년 19회 청룡기대회 관중은 52,890명이었지만 1975년 30회 대회 때는 157,792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1979년에는 215,99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¹⁶ 고교야구 연간 총관중이 1970년대의 10여 년을 통해 무려 4배가량 증가한 폭발적인 성장세였다.

고교야구의 인기는 성인야구로 확산되었다. 야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자 대학과 실업팀도 투자를 늘렸고 고교야구의 열풍을 주도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해진 고교 스타플레이어들도 차례로 성인무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973년 고교야구 관중은 58만 5천 명(경기일 평균 7,800명)이었지만 실업야구 관중은 8만 3천명(경기일 평균 1,400명)에 그쳤다.¹⁷ 하지만 1977년에는 대학과 실업팀이 참가하는 백호기 대회가 경기일당 평균 관중 2만 명에 육박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¹⁸ 1978년 대학야구연맹전은 연간 45만 명 이상의 관중을 모았다.¹⁹

특히 민간자본 참여의 확대는 프로야구 창설을 예고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1976년 롯데가 팀을 창단했고, 1977년에는 한국화장품이 가세했으며,

16 《동아일보》, 1964년 12월 9일자; 《경향신문》, 1975년 11월 11일자, 1979년 10월 20일자.

17 《조선일보》, 1974년 2월 9일자.

18 《경향신문》, 1977년 5월 27일자.

19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1999), 앞의 책, 819쪽, 829쪽.

국영이지만 기존 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 월등했던 포항제철이 기업은행을 인수해 리그에 참가했다. 그 해는 현대가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을 인수하려다 선수 선별수용계획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선수 수요도 확대돼 1977년 대학졸업선수는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²⁰

이전까지 스포츠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대회 성적이었다. 예컨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손기정, 남승룡)에 이어 1947년(서윤복)과 1950년(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보스턴마라톤 대회의 승전보는 마라톤 열풍으로 연결되었다.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진출(1948년 런던 올림픽 8강, 1954년 스위스 월드컵 16강) 외에도 늘 아시아 정상을 다투던 축구가 국민적 관심을 모은 것도 당연했고 여자농구와 여자배구가 1960년대 중반 이후 인기를 모은 과정도 같았다. 여자농구는 196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하며 대회 MVP(박신자)까지 배출했고, 여자배구 역시 같은 해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3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야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도 아니었고 국제대회 실적도 미미했다. 1963년 서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 사상 첫 승리를 거두고 우승하면서 그 해 서울운동장의 야구입장객수를 48만여 명까지 증가시키기도 했지만 이듬해인 1964년에는 38만 7천여 명으로 뒷걸음쳤을 만큼 파급력의 한계는 뚜렷했다.²¹

1963년 홈팀의 이점을 업고 첫 우승에 성공한 이후 필리핀(1965) 대회 2위, 일본(1967)대회 2위, 대만(1969)대회 4위에 그친 한국대표팀은 다시 한국에서 개최된 1971년 대회에 두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야구대표팀은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인 1975년 대륙간컵 대회에서는 3승

20 《경향신문》, 1977년 7월 21일자.

21 《동아일보》, 1963년 12월 3일자, 1964년 12월 9일자.

4패로 8개국 중 공동 3위, 이듬해인 1976년에는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인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도전해 5승 5패를 거두어 11개국 중 공동 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²² 한국은 결국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대륙간컵 대회와 198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통해 세계대회 정상에 오르지만, 그것은 이미 야구가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갑작스러운 야구 열풍은 이전까지 다른 종목의 스포츠들과는 다른 매우 예외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스포츠 수요층의 확대

1. 산업화와 도시화: 여가와 소비의 증가

한국 사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해방 당시 20% 선이던 도시화율은 1970년에 50%를 넘어섰고 서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대 초반까지 10% 선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20%를 넘어섰을 정도로 빠르게 불어났다. 산업면에서도 농업 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970년대 초반 이후로는 농업 부문 종사자 수도 전체 취업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²³ 그리고 비농업부문의 노동이 일반화되면서 근대적 여가를 가지게 된 이들이 그만큼 늘어났다. 농업 등 1차 산업은 노동시간의 구성이 자연의 리듬과 결부되어있지만 2, 3차

22 대한야구협회·한국야구위원회(1999), 앞의 책, 809쪽, 828쪽, 849쪽, 941쪽.

23 이종구 외,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고용노동부, 2002), 15쪽.

산업 임금노동은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통해 매일을 같은 방식으로 구획하며, 주중의 근무일과 주말의 휴일을 분리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성과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이 증가한 1970년대였다. 1965년 108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69년 200달러, 1971년 300달러를 거쳐 1977년 1,050달러에 달했다.²⁴

이렇게 여가 시간과 소비력을 갖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 후반 이후, 야외에서 노동 외 시간을 즐기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가'라는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²⁵ 여전히 한계 수준의 노동조건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학력·여성 노동자들과 달리 임금상승과 여가를 보장받게 된 고학력 남성들은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력의 활용을 모색했고, 그들을 통해서 도시 중산층 남성 중심의 여가 문화가 확산한 것이다.

특히 신체활동과 승패의 대결을 중심에 두는 스포츠는 도시 남성들이 주도하는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영역이 됐다. 1969년 창간 당시 2만 부를 발간했던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지 《일간스포츠》가 불과 4년 뒤인 1973년에는 그 10배인 20만 부를 찍어냈고, 다시 3년 뒤인 1976년에는 4배의 성장을 거듭해 80만 부를 찍어냈을 만큼 급성장한 것은 그런 변화의 한 단면이었다. 《일간스포츠》의 광고수주액도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연평균 78%의 성장을 지속했는데²⁶, 이는 1970년대 초반 스포츠의 인기와 그 중심에 있던 야구의 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1960년대를 거쳐 성장하고 1970년대에 체감되기 시작한 소비력과 여가의 증가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이룬 종목은 야구였다.

24 세계은행(data.worldbank.org).

25 송은영, 「1970년대 여가문화와 대중소비의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제50권(2013), 44쪽.

26 한국일보, 『한국일보30년사』(한국일보사, 1984), 737-742쪽.

2. 전파매체의 보급과 방송의 확대

1970년대 민간소비의 확대는 전파매체의 보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늘어난 소비력이 전파매체의 판매를 증가시켰고, 전파매체를 통해 확산된 대중문화와 광고가 소비를 촉발했다.

라디오는 197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1970년대 말에는 500만대를 넘어서게 됐는데, 1980년 총가구수가 797만이었음²⁷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구당 1대 가까운 보급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매체를 통한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²⁸ 또한 1967년에 6만6천 대에 불과했던 TV 보급대수는 1974년에 100만대를 넘어섰고, 1980년대 초에는 500만대까지 늘어났다. 특히 TV의 등장과 보급은 대중문화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동시에 가속화시켰다.

KBS는 1956년 5월 12일 TV시험방송을 거쳐 1963년 1월 유료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1964년 TBC, 1969년 MBC 등 민영방송국이 개국한 데 이어 1980년 컬러TV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 성장 과정에는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생방송이나 1972년 1년 내내 70% 이상의 시청률을 유지한 일일 드라마 <여로> 같은 콘텐츠의 기여가 컸다. TV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은 매체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고, 확대된 매체의 보급은 더 많은 문화생산을 유도했다. 이 내용은 표1 전파매체 보급 추이에 제시되어 있다.

표1-전파매체 보급 추이(단위: 대)

	1967	1970	1973	1975
라디오	966,596	1,896,952	2,824,622	3,467,661
TV	66,062	378,331	962,119	1,613,276

*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kr

27 국가통계포털(kosis.kr).

28 김은식(2019), 앞의 논문, 490쪽.

위의 표1에서 드러나는 TV의 보급과 방송 확대가 내수 소비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광고비 지출의 증가폭과 그 중에서 TV 광고가 차지한 비중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국민소득 대비 총광고비의 비율은 1973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1980년대 초까지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TV광고였다. 예컨대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총광고비 성장률은 2,167%였는데 4대 매체 중 TV만이 4,556%였고 신문, 잡지 라디오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²⁹ 그래서 같은 기간에 MBC TV의 광고 수입은 11.4억 원에서 472억 원으로 41배 증가했고 TBC TV는 11.5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26배 증가했다.³⁰ 광고시장 확대는 방송국 수익 증가로 이어졌고, 그것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광고수입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아래 표2 매체별 광고비 성장률(1970-1980)에 제시되어 있다.

표2-매체별 광고비 성장률(1970-1980)(단위: 억 원)

연도	신문	잡지	라디오	TV	계
1970	60	8	26	18	127
1980	989	108	344	820	2,752
성장률(%)	1,648	1,350	1,323	4,556	2,167

* 자료: 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 100년』(한국광고협회, 1996), 43쪽.

스포츠는 TV방송시대 초기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였다. 캐스터의 목소리만으로 충분히 묘사하고 전달할 수 없는 선수들의 동작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을 만족시켰고, 별도의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지 않아 방송사의 제작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 TV의 첫 야외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은 1962년 6월 12일 서울야구장

29 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100년』(한국광고협회, 1996), 43쪽.

30 한국광고협회(1996), 위의 책, 43-44쪽.

에서 열린 한일친선야구대회 중소기업은행과 메이지대학의 경기였다.³¹ 그 뒤 TV 스포츠 중계방송은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고교야구대회 등으로 확장되어 1972년을 기점으로 라디오 중계방송의 빈도수를 넘어섰다.³²

또한 1963년에 TV 방송을 시작하던 시점의 KBS에서는 전무했던 스포츠 프로그램이 1969년에 개국한 MBC는 2.6%, 1970년에 개국한 TBC는 3.1% 편성되기 시작했고 KBS 역시 1975년 4.6%를 거쳐 1978년에는 12.2%에 이를 만큼 확대되었다.³³

스포츠프로그램 방송의 확대는 물론 스포츠판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여전히 경기장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장 입장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IV.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 진흥정책

한국 스포츠의 비약적 발전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그 해 10월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문교부 문화국 산하의 체육과를 체육국으로 승격시켰고, 1962년에는 국민 체육진흥법을 제정해 체육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장충체육관을 실내체육관으로 개축해 실내종목 발전의 바탕을

31 《동아일보》, 1962년 6월 12일자.

32 이강우, 「한국사회의 스포츠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II)」, 『한국체육학회지』 제36권 2호(1997), 48쪽.

33 《조선일보》 1967년 3월 30일자, 1969년 8월 7일자, 1970년 8월 25일자; 최중선, 「TV 스포츠방송 편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18-22쪽.

마련했으며 1966년에는 태릉선수촌을 건립해 박정희식 국가아마추어리즘의 토대를 완성했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체육진흥정책을 펼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것은 군사정권의 태생적 성격이다. 김방출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세 군인 출신 대통령 모두 사관학교와 군대생활의 영향으로 신체단련과 단결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했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스포츠를 장려했다고 설명했다.³⁴ 이옥훈 등도 역시 3공화국과 5공화국의 스포츠정책을 비교하면서 군인 특유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엘리트 중심 스포츠정책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³⁵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진흥은 '세계무대에서의 국위 선양이 가능한 종목에 집중됐지만, 야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혜택을 받았다. 역시 학생 시절 야구를 경험한 명문 학교 출신 정권 핵심층의 선호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야구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관심이 각별했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군사정변 한 달 뒤 육군 야구부를 재창단하고 7월 8일에는 야구와 연식야구 등 8개 종목으로 '군사혁명체육축전'을 열었으며, 8월 24일에는 '혁명백일기념야구대회'를 개최했다. 또 1962년 4월 17일에는 각군대향 연식야구대회를 열어 각팀이 대령급 이상 장교들로 선수단을 꾸리고 최고 지휘관이 반드시 선발투수로 등판하도록 해 육군참모총장 김종오 대장과 공군참모총장 김신 대장이 선발 맞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시구는 박정희

34 Bang-Chool Kim, "More than a Game: Sport and Politics in Korea, 1961-1992." *Korean Journal of History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8(2001), pp. 25-26.

35 이옥훈·주동진·김동규,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성향 비교」,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권 1호(2003), 73-74쪽.

의장이었다.³⁶ 또 11월 24일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가운데 ‘정부기관 친선야구’대회를 열어 최고회의, 내각, 대법원, 군 등 4팀을 출전시키고 역시 각 기관장과 간부들이 모두 출전하도록 했는데, 그 경기에는 박정희 의장이 직접 최고회의 팀 2루수로 출전해 2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³⁷ 각군 장성과 참모총장의 ‘의무출전’에 관한 규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 뿐이며, 그것은 박정희 본인이거나 최소한 박정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점인 박정희 본인의 경우 언제 야구를 접했고,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부산 군수기지사령관 시절 고교야구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고 스스로 ‘장훈 선수와 백인천 선수의 팬’이라고 밝힌 적도 있으며³⁸, 대통령 후보 시절 아내 육영수가 ‘가끔 남몰래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구경하는 것이 취미’라고 한 적도 있었다.³⁹ 정변 직후에도 직접 대회를 열고 선수로서 출전하기까지 한 점을 미루어보면 이미 청년기에 야구를 접하고 경험해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주중학과 일본 유학 시절 야구를 접한 뒤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야구협회장을 역임하게 되는 김종락과 그의 동생 김종필은 각종 야구대회와 야구팀 창설을 주도했다. 또 최고위원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이 스스로 야구선수 경력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으며⁴⁰ 공화당 초대 사무총장 윤천주 역시 서울대와 공군 야구선수 출신이었다.

36 대한뉴스 386호

37 대한뉴스 393호.

38 《경향신문》, 1962년 6월 12일자.

39 《경향신문》, 1963년 8월 30일자.

40 《동아일보》, 1962년 11월 24일자.

1. 실업야구의 확대

1962년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스포츠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실업야구 역시 그 일환이었다. 실업야구는 1947년 3개의 금융기관과 5개의 국영 전기회사들이 〈한성실업야구연맹〉을 결성한 뒤 몇 차례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1950년대 중반 이후 5개 안팎의 팀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1962년 시즌 전후 한꺼번에 8개의 신생팀이 창단하면서 3배 가까이 팽창했고 1964년 시즌부터는 폴리그 페넨트레이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기수도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실업야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된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이었고, 구체적 실행을 주도한 것은 1962년 당시 한일은행 전무를 지내던 김종락이었다. 그는 김종필의 친형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상당액의 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자신의 집을 거사 모의 장소로 제공한 5.16 군사정변의 핵심 중 한 명이기도 했다.⁴¹ 그 공로로 그는 정변 직후 건국 2등 훈장을 받았고, 불과 2달 만에 대리에서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다. 공주중학과 일본 유학 시절 야구를 접한 그의 주도로 정부는 팀당 60만원씩의 장려금을 걸고 실업팀 창단을 독려했고, 그 결과 무려 8개 팀이 한꺼번에 신설됐다.⁴²

실업팀이 늘어나면서 학생 선수들의 진로가 넓어졌고, 특히 은행 취업률 제고에 관심이 높던 상업고등학교들의 야구부 창설 붐으로 이어지며 고교 야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⁴³ 또한 페넨트레이스 제도 도입으로

41 《월간조선》, 1999년 7월호.

42 《경향신문》, 1964년 1월 27일자.

43 1962년 은행을 중심으로 8개의 실업팀이 창단된 직후인 1963년에만 3개의 상업고등학교(동대문상고, 경기상고, 마산상고)가 야구부를 창설했으며 그 뒤로도 군산상고(68), 광주상고(70), 목포상고(74), 여수상고(78), 영동상고(79), 덕수상고(80), 순천상고(80) 등의 야구부 창설이 이어졌다.

경기가 없을 때마다 사무실로 복귀해 일반 업무에 종사해야 했던 실업팀 선수들이 최소한 몇 년간은 전업적으로 야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⁴⁴ 실업팀 증설은 야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를 켜 사건이었던 셈이다.

2. 야구장의 증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정확한 규격과 일정 규모 이상의 관중석을 갖춘 야구장이 지어진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62년 43회 전국체육대회를 경북(대구)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제44회 전북(전주), 제45회 경기도, 제46회 전남(광주) 등 지방순회개최가 이루어지면서 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각 도시에 공설종합운동장들이 건설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구장 건설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63년 전주야구장을 시작으로 1964년 대전, 1965년 광주, 1968년 제주, 1971년 수원야구장이 문을 열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규격을 갖춘 그라운드와 1만 명 안팎의 관중석을 갖춘 야구장이 확보되었다.

이전까지 서울야구장(동대문)과 육군야구장(용산) 외에는 충분한 규격과 관중수용시설을 갖춘 야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교야구 선수들이 전국대회 본선 외에는 제대로 된 야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지방의 야구장 건설은 야구의 전국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는 의미가 있었다. 각 지역에서 학생야구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들의 경기에 관중을 모으면서 '보는 스포츠'로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장은 고정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를 유치

44 박영길 인터뷰, 2011년 9월 13일.

해야 했고, 경기 주최 측은 더 많은 관중을 모아 관중석을 채워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야구팀을 만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와 정권 고위층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야구는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63년 박정희 최고위원의 특별지시에 의해 서울야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최고회의 의장실에 초대된 선수단의 야간조명시설 건의가 수용돼 2년 뒤인 1965년에 그 사이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부부의 참관 아래 첫 야간경기를 치렀다.⁴⁵ 전기요금 때문에 실업야구경기가 야간에 치러지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국제대회유치와 프로야구 창설을 위한 필수조건이 충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V. 지역주의

1. 지역갈등의 대두

스포츠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다.⁴⁶ 즉, 경쟁이란 스포츠 개념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속성이며, 경쟁의 주체인 적과 나의 구분 역시 전제한다. 그리고 스포츠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상적인 공동체로의 귀속을 제공하여 동일시의 상징으로 기능한다.⁴⁷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45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1999), 앞의 책, 624쪽; 장태영, 『백구와 함께 한 세월』(홍, 1998), 232쪽.

46 R.Thomas 저, 이규식 역, 『스포츠의 역사』(한길사, 2000), 34-37쪽.

47 양순창, 「스포츠의 정치적 상징성과 상징조작기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응원하는 행위는 경쟁의 주체들 중 어느 편에 가담함을 의미한다. 특히 단체경기인 구기종목은 쉽게 집단적 동일시의 매개가 되곤 하는데, 그 경쟁관계가 현실적·상징적인 이해경쟁관계와 겹치거나 일치할 경우 폭력 사태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만큼의 폭발력을 가지기도 하며, 그런 폭발적인 갈등은 스포츠에 대한 열광적 몰입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스포츠의 흥미 요소는 스포츠 내부가 아닌 외부의 갈등과 대결의식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과 연관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영호남 지역대결의식과 연관되어왔다. 하지만 최소한 2, 3년에 한 번 꼴의 빈도를 넘기 어려웠던 한일전, 남북전에 비해 지역간 대결구도에 바탕한 고교야구는 해마다 최소한 4번 이상의 전국대회가 치러질 수 있었기에 훨씬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긴장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영호남 지역주의는 현재까지도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투표행위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은 19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전면화되었는데, 그것은 1960년대 이후의 편향적 경제 성장이 만든 갈등요소가 정치적으로 동원된 결과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해외 차관 등의 한정된 자본과 자원이 정부의 계획과 결정에 의해 권위적으로 배분되고 선택적으로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1967년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와 미포조선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마산에 기계류 생산공장과 섬유단지가 특화되었으며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에 구미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포항의 제철소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은 특성화된 공업단지들이 근거리에서 연결되는 세계

제43권 3호(2003), 55-56쪽.

적 공업지역으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호남지역에 들어선 대형 산업시설은 여수의 호남정유와 호남화력발전소, 광주의 아세아자동차 공장 등 3개뿐이었다.⁴⁸

물론 최대무역항이 부산이고 식민지 산업 유산이 비교적 남아있는 곳 역시 영남이라는 지리적-역사적 특성이 있었고 식량주권 확보와 급증한 도시인구 부양을 위해 호남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영남에 집중된 경제성장의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분배되거나 농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불신과 불만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개발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다수가 영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 간의 대결의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정치가 아닌 비밀결사행동을 통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요직을 박정희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대부분은 영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기(1961-1979) 경제부처(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건설부) 과장급 이상 행정엘리트의 출신 지역 영호남 비율은 2.5:1에 달했다.⁴⁹

그런 현실은 의식으로 반영되었다. 1989년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불균형한 경제정책(29%)이었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서울(29%)과 경북(23%), 경남(18%)이, 가장 불이익을 받은 지역은 전남(34%)과 전북(12%)이 꼽혔다.⁵⁰

산업시설 편중은 일자리와 지역 주민 소득의 격차로 나타났다. 1960년에

48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산업경관의 탄생』(알트, 2014), 78-230쪽.

49 고흥화, 『한국인의 지역감정』(성원사, 1989), 115쪽.

50 김익기, 「지역감정 해소방안: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성원사, 1989), 385-402쪽.

경상도와 전라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8400원과 7500원으로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두 지역 간의 격차는 10% 안팎이었다.⁵¹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상도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꾸준히 전국 평균을 넘어선 반면 전라도 지역은 30%에서 40%까지 미달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⁵²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격차와 소외는 호남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져 1944년에 1.12:1이던 영호남 인구비가 1960년에는 1.35:1로, 다시 30년 뒤인 1990년에는 2.28:1까지 벌어졌다.⁵³

두 지역의 소득격차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에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1971년에 치러진 제 7대 대통령선거는 지역대결의식을 고착화하는 계기가 됐다. 영남인구가 호남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의 출신 지역인 호남을 포기하고 영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총득표 면에서 유리했던 여당이 영남 지역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지역동원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당선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는 국회의장 이효상의 발언을 필두로 영남의 유세장에서마다 ‘전라도가 뭉쳤으니 우리도 똥똥 뭉치자. 그러면 154만표 이긴다’⁵⁴는 등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호남향우회 명의로 호남인의 단결을 호소하는 중앙정보부의 흑색공작 유인물이 뿌려지기도 했다.⁵⁵ 결국 그 선거에서 영남지역은 261만표(박정희)와 102만표(김대중)로, 호남에서는 141만표(김대중)와 79만표(박정희)로 갈렸다. 영남에서는 박정희가 2.6대 1로, 호남에서는 김대중이 1.8대 1의 비율로 앞선 셈이었다.

51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52 문석남,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18권 1호(1984), 198쪽.

53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 『한국의 장기통계 1』(해남, 2018), 87-88쪽.

54 《중앙일보》, 1971년 4월 22일자.

55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역사연구』 제37권 (2019), 693쪽.

승자는 총투표에서 95만여 표 앞선 박정희였다.

지역대결의식이 동원된 선거전은 대결의 명분으로서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관한 담론들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간 대결의식을 강화했다. 하지만 1972년 유신개헌 이후 모든 선거는 유명무실해졌고, 6월 항쟁 이후 재개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구조화되고 강화된 지역대결의식이 정치무대에서 표출될 여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그 시기에 상징화된, 하지만 순화된 형태의 지역대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울야구장이었다. 같은 시기에 진전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모여든 각 지역 출신들이 각자 뭉치고 서로 대면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대결이 바로 야구였던 것이다.

2. 야구의 지역대결구도와 전국화

1960년대까지 고교야구에서 재학생과 동문들의 관심사는 같은 지역 학교간의 라이벌전이었다. 지역예선에서 늘 만나는 상대였고, 같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경쟁도 해야 했으며, 졸업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며 경쟁하는 상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⁵⁶ 예컨대 1961년 청룡기 부산예선 때는 부산상고와 경남상고, 경남고와 동래고 학생들이 경기 중 오심 시비를 빌미로 투석전을 벌였고⁵⁷, 1962년 7월 4일 서울에서는 배문고와 선린상고 학생들이 역시 투석전을 벌여 수십 명이 다쳤다.⁵⁸ 그 외에도 인천고와 동산고, 경북고와 대구상고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명문학교들이 지역예선에서 맞붙을 때마다 경기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집단충돌을

56 임호균 인터뷰, 2020년 3월 12일.

57 《조선일보》, 1961년 5월 16일자, 5월 21일자.

58 《동아일보》, 1962년 7월 5일자.

빛는 일은 흔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고교야구는 지역간의 대결구도로 확장되었고, 각 도를 대표하는 학교들 사이의 대결이 보다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진원지는 호남이었다.

호남야구는 1949년 제 4회 청룡기 대회에서 광주서중이 투수 김양중을 앞세워 역전우승하며 경남중의 3연패를 저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일고가 전쟁 후인 1956년에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야구부를 해체한 뒤 전주고, 전주상고, 광주고, 광주공고, 광주상고 등에서 야구부가 창설과 해체를 반복하는 흐지부지한 상황이 이어졌다.

상황을 바꾼 것은 군산상고였다. 서울대 야구부 출신인 경성고무 군산공장 이용일 사장의 기획과 후원 덕분이었다. 이용일은 군산 시내 4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중학교 야구부 창설을 지원했고, 다시 군산상고 야구부 창단을 주도해 그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⁵⁹ 그리고 두 차례 실업야구 다승왕을 지냈지만 26세의 이른 나이에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최관수 감독 영입을 주선했다. 성인무대 최정상 선수였던 감독의 부임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고양시켰으며, 그의 열정적인 지도는 단기간 내에 선수들의 기량을 급상승시켰다.⁶⁰

군산상고는 창단 직후부터 지역 내 선발주자인 전주상고를 압도했고 1971년 9월에는 봉황기 대회 3회전에서 경북고와 연장 14회 혈투를 벌여 주목받은 데 이어, 한 달 뒤인 10월에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 그리고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9회 말 3점 차의 열세를 뒤집고 부산고를 5대 4로 역전해 전후 호남지역 학교 최초의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며 '역전의 명수'라는 호칭을 얻었다.

지방 소도시의 이름 없는 학교였던 군산상고가 창단 3년 만에 전국을

59 이용일 인터뷰, 2009년 12월 20일.

60 김봉연 인터뷰, 2017년 8월 9일.

제패하고 명문학교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특히 호남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게 야구부 창단의 매력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웅변했다. 광주일고와 광주상고가 야구부를 재창단한 데 이어 광주고, 전남고, 송의실업고, 진흥고, 동신고, 목포상고, 여수상고가 가세해 특히 전남지역은 지역에선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에서 고교야구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카퍼레이드였다. 카퍼레이드는 무개차를 타고 시가지를 가로지르며 시민들의 축하와 환대를 받는 행사로서, 중심도로의 교통을 통제해야 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자 서운복 선수를 환영한 중앙청 앞 카퍼레이드 이후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이들을 환영할 때 주로 열렸는데,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야구대표팀(1963)과 한국 최초의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김기수(1966),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한 여자농구대표팀(1967) 등이 대표적인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야구팀들을 위한 카퍼레이드가 열려 각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을 강화했다.

고교야구팀 최초의 카퍼레이드는 1958년 제13회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한 뒤 '전국고교선수권제패'라는 플래카드를 건 트럭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종로를 거쳐 아현동의 학교까지 행진한 경기공고였다.⁶¹ 하지만 그것은 자축행진이었을 뿐 시민환영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71년 제 26회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경북고 팀을 위해 대구시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경북고 선수들은 대구역에 도착해 경상북도 교육감이 주관한 시민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5관구 사령부에서 제공한 지프차 10대에 나누어 타고 시내를 행진했다.⁶²

61 《중앙일보》, 1980년 10월 25일자.

62 《조선일보》, 1971년 6월 12일자.

이듬해인 1972년 제 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군산상고 선수들을 위한 행사는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 선수들은 전주의 전북도청에 도착해 도민환영대회에 참석한 뒤 35사단에서 제공한 지프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리의 공설운동장까지 행진했고, 그곳에서 다시 환영 행사를 치르고 군산까지 행진해 시내 곳곳을 돌아 군산초등학교 운동장과 군산시청 앞에서 열린 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한 뒤 군산상고로 돌아가 재학생과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⁶³ 모두 45km의 도로에서 이어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군산에서만 7만여 명으로 당시 12만 명의 군산시 인구 과반수가 참여한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였다. 그 해 군산상고의 우승은 학교와 도시를 넘어 전북도민 전체의 경사로 받아들여졌으며, 매우 열광적인 몰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후 각 지역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선수들을 위해 경쟁적으로 환영행사를 벌였다. 1973년 31회 청룡기를 차지한 경남고 선수들이 부산역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고⁶⁴ 1975년에는 9회 대통령배 대회에서 첫우승한 광주일고가, 1977년에는 11회 대통령배 대회에서 충청권 최초로 우승한 공주고가 역시 대대적인 도민환영대회에 참석한 뒤 무개차에 올라 행진했다. 한국화약그룹 계열 북일고가 봉황기 대회에서 첫 우승한 1980년에는 천안 시내에 불꽃놀이가 벌어지기도 했다.⁶⁵ 그런 과정을 통해 고교야구팀과 지역민들 사이에 강한 일체감이 형성되었으며, 각 지역민들 사이의 경쟁의식도 고조되었다.

63 《동아일보》, 1972년 7월 21일자.

64 《조선일보》, 1973년 6월 22일자.

65 이희수 인터뷰, 2015년 1월 16일.

표3-4대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 진출 팀 소재지

	1953-1969	1970-1980
서울	29	28
인천	15	4
대구경북	12	25
부산경남	13	15
호남	0	11
충청	0	2
기타	0	1

* 자료: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사』(1999),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각 대회 보도. 재구성.

1970년대 전반기에는 경북권 학교들이 전국대회를 휩쓰는 가운데 호남권 학교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1971년 경북고가 4대 대회 포함 6개 전국대회를 석권했지만 이듬해인 1972년에는 군산상고가 호남지역 최초로 전국대회 우승에 성공하며 그 못지않은 주목을 받았고,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또다시 대구상고와 경북고가 6번 우승하며 패권을 대구로 가져가자 1975년과 1976년에는 광주일고와 군산상고가 대통령배 우승기를 주고받으며 반격했다.

물론 표3에 나타나듯 여전히 더 자주 우승하는 쪽은 수도권과 영남권 학교들이었지만, 호남권 학교들도 의미 있는 도전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전국대회 결승이 영호남 대결로 치러질 때는 경기 내용도 한층 치열했다. ‘역전의 명수’ 사건의 1972년 황금사자기(군산상고:부산고) 외에도 김윤환이 고교야구 최초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1975년 대통령배(광주일고:경북고), 최동원이 20탈삼진을 기록하며 1대 0 완봉승을 이끈 1976년 청룡기(경남고:군산상고), 무실점 완투 끝에 9회 초 포수 이만수의 실책으로 1점을 내주며 눈물 흘린 김시진의 이름을 알린 1976년 대통령배(군산상고:대구상고) 등이 화제가 되며 야구는 영호남 지역대결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1970년대 이후 호남은 고교야구 대회에서 대등한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치열하고 흥미로운 대결에 동일시하고 몰입했다. 호남의 열광은 영남의 최강자로서의 자부심과 위기의식을 동시에 자극했고, 충청의 자신감까지 이끌어내며 야구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장했다.

VI. 맺음말

한국에서 야구는 국민스포츠로 불린다. 연간 150일 이상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중계방송되며 매일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그것을 지켜본다. 하지만 110여 년에 이르는 역사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었으며, 야구부가 운영되는 몇몇 명문학교 출신들과 특정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향유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고교야구에 갑자기 국민적인 관심이 모였고 그것이 곧 대학과 실업야구로 확산되었으며 민간자본이 유입됨으로써 프로야구 창설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1982년 프로야구 창설은 전두환 정권이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 한국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야구가 성장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야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1960년대에 본격화되고 빠르게 진전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소비력과 여가 시간을 확보한 도시 중산층 남성 중심의 잠재적 스포츠 수요층을 형성했고, TV와 라디오의 보급과 방송의 확대는 스포츠문화 확산의 배경을 만들었다. 또한 전국대회 지방순회개최 준비 과정에서 전국 거점도시에

건설된 규격야구장은 야구 전국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으며, 5.16 군사 정변 직후부터 추진된 여러 가지 스포츠진흥정책은 실업야구팀의 확대를 통해 고교야구의 양적 성장을 촉발했다. 이렇게 1960년대를 통해 형성되고 확대된 유무형의 인프라 위에서 1970년대에 나타난 고교야구의 영호남 지역대결구도는 당시 경제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되며 확산된 지역간 대결의식과 맞물리면서 야구에 대한 대중적이고 열광적인 몰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1960년대를 통해 토대를 형성하고 1970년대를 통해 문화적으로 확산된 한국의 야구는 1970년대 말 상업화의 가능성을 성숙시키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는 1982년 프로야구가 창설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언론 보도와 기록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분석함으로써 1970년대에 한국야구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원인들을 탐색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진전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여가문화의 대두와 소비력의 증대, 전과매체의 보급, 그리고 야구장 건설과 실업팀 증설 등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야구진흥정책들이 1970년대 야구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으며, 불균형한 산업발전과 정치과정에서 비롯된 지역대결의식이 고교야구의 지역대결구도와 맞물려 야구의 인기가 광역화되고 전국화되는 질적 변화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전두환 정권의 역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1970년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한국 야구의 발전과정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정도로 작용하고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의 발굴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다양한 영역과 분석수준에서 진행될 후속 연구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대한뉴스》, 《동아일보》, 《월간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가지표체계(index.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

세계은행(data.worldbank.org).

한국은행경제통계(ecos.bok.or.kr).

대한체육회, 『체육연감』(1961-1988).

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100년』. 한국광고협회, 199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8 스포츠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한국야구위원회 보도자료(2013년 2월 26일).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사』. 1999.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한국은행, 1978.

한국일보, 『한국일보30년사』. 한국일보사, 1984.

구술자료: 김봉연(2017년 8월 9일 자택에서 면담), 박영길(2011년 9월 13일 논현동 카페에서 면담), 이용일(2009년 12월 20일 야구회관에서 면담), 이희수(2015년 1월 16일 한화 이글스 필승관에서 면담), 임호균(2020년 3월 13일 야구회관에서 면담).

2. 단행본

고흥화,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1989.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 『한국의 장기통계 1』. 해남, 2018.

김은식, 『서울의 야구』. 서울역사편찬원, 2017.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산업경관의 탄생』. 알트, 2014.

이종구 외,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 고용노동부, 2002.

장태영, 『백구와 함께 한 세월』. 흥, 1998.

R.Thomas 저, 이규식 역, 『스포츠의 역사』. 한길사, 2000.

3. 논문

김명권,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제7권

- 2호, 2012, 163-183쪽.
- 김은식,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한국학』 제42권 2호, 2019, 479-509쪽.
- 김익기, 「지역감정 해소방안: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1989, 385-402쪽.
- 문석남,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18권 1호, 1984, 134-173쪽.
- 송은영, 「1970년대 여가문화와 대중소비의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제50권, 2013, 39-72쪽.
- 안민석,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사태와 한국 프로스포츠의 구조」. 『황해문화』 30호, 2001, 357-367쪽.
- 양순창, 「스포츠의 정치적 상징성과 상징조작기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권 3호, 2003, 53-72쪽.
- 이강우, 「한국사회의 스포츠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II)」. 『한국체육학회지』 제36권 2호, 1997, 43-58쪽.
- 이경자, 「신문체육기사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9권, 1974, 121-136쪽.
- 이옥훈·주동진·김동규,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성향 비교」.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권 1호, 2003, 65-77쪽.
- 이종성, 「1970년대 고교야구의 전국화와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2권 3호, 2017, 49-64쪽.
- 임식·허진석,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정책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스포츠와 법』 제12권 1호, 2009, 105-130쪽.
- 전용배·김애량, 「한일야구의 사회문화적 함의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제34권, 2011, 309-325쪽.
- 최종선, 「TV 스포츠방송 편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역사연구』 제37권, 2019, 677-707쪽.
- Bang-Chool Kim, "More than a Game : Sport and Politics in Korea, 1961-1992." *Korean Journal of History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8. 2001, pp. 16-29.

국문초록

1982년 프로야구 창설은 전두환 정권의 기획과 주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야구 발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야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언론 보도와 기록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분석함으로써 1970년대에 한국야구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원인들을 탐색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진전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대중적 스포츠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 실업야구팀의 증설을 비롯한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야구진흥정책과 전국체전 지방순회개최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된 야구장들이 1970년대 고교야구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불균형한 산업 발전과 정치과정에서 비롯된 지역대결의식이 고교야구의 지역대결구도와 맞물려 야구의 인기가 광역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질적 변화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투고일 2021. 3. 14.

심사일 2021. 4. 23.

게재 확정일 2021. 5. 13.

주제어(keyword) 야구(Baseball), 1970년대(1970's), 지역주의(Regionalism), 사회변동(Social Change)

Abstract

Sociolog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Baseball: 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Popularization of Baseball in the 1970s

Kim, Eun-sik

The cre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in 1982 was planned and led by the Chun Doo-hwan regime, but it was in the 1970s that the environment was cre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sudden development of baseball in Korean society in the 1970s to fully explain the social meaning of baseball in Korea toda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of development of Korean baseball in the 1970s by analyzing various media reports, records, and testimonies of related people. In addition to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at advanced in the 1960s, the active baseball promotion policies of the Park Chung-hee regime l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high school baseball in the 1970s, and the unbalanced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consciousness of regional confrontation arising from the political process were aligned with the regio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high school baseball. It was revealed that the popularity of baseball has led to a qualitative change that has become widespread and spread across the country.

